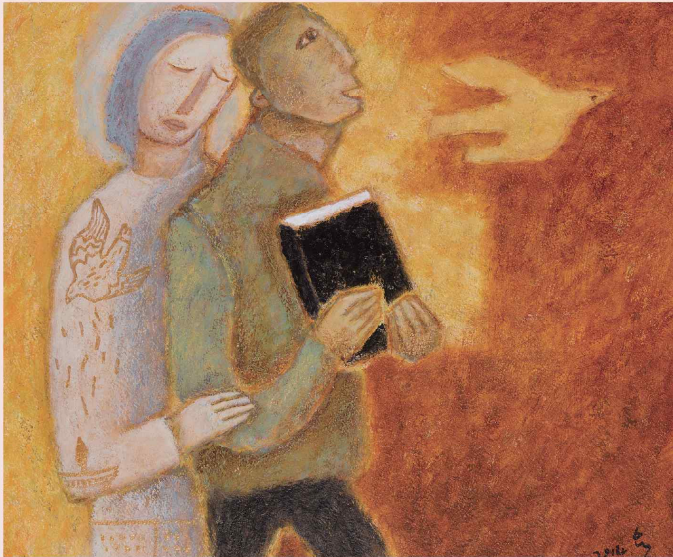




연중 제29주일(10월 22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마태 28,16-20)



동행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19-20)

세상의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는 힘과 언변,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에 두려움과 걱정 앞에서도 큰 기쁨과 평화를 간직하며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교주일을 맞아, 이웃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신앙의 기쁨으로 초대하는 선교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출처: 서울주보, 2014. 10.19.)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마태오 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16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17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18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더러는 의심하였다.”(마태 28,17)

지금 내 안에 믿음보다 의심이 더 크지는 않습니까?

†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마태 28,20)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전교란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세상 끝 날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계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교의 핵심입니다. 세상을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괜찮다고 했던 이들도 이제는 불안을 느낍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야 합니다. 그분의 힘과 능력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확신에 찬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자신은 망설이면서 어떻게 남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약했기에 선교도 약했던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운명과 소유의 진짜 주인은 당신이고 나는 관리자일 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뜻합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